

연재 순서

- 제1권 내용 요약
- 一.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재단의 조희성님
- 二.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 관계
- 三. 엄마, 영모님
 - 1) 박태선님의 발자취
 - 2) 엄마 소리와 소 울음소리
 - 3) 소 울음소리의 실제인 박태선 영모님
- 四.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구세주님
 - 1) 박태선님은 당신을 엄마라고 공식 지칭함
- 五. 金木合運하여 지상선국 창건이라

제2권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3) 소 울음소리의 실제인 박태선 영모(靈母)님

영모(靈母)님! 영의 엄마란 뜻이다. 그분을 “엄마, 엄마”하고 부르며 따르던 무리들이 소사신앙촌이 건설되고 5만제단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 돌연 ‘엄마’란 호칭(呼稱)이 ‘영모(靈母)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엄마’라는 호칭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영적인 엄마라는 뜻으로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요, 즉 ‘박태선 엄마’는 인류의 구세주요, 생미루부처님이요, 정도령님 되는 한 분을 해산의 수고 끝에 영적으로 낳아 키워 출현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엄마이신 것이다. 그분의 전도관 역사와 신앙촌의 역사는 오직 한 분 구세주 정도령님을 낳아(찾아) 키워 출현시키시기 위한 역사이다.

박태선 영모님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엄마로서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셨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빠놓지 않고 말

씀하시던 ‘해산의 수고’ 끝에 육동자 구세주를 낳은 것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편 2편)” “해를 웃 입 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며 곧 남자라(묵 12장)” “보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사 7:14)” 이와 같이 성경상의 예언이 완벽하게 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것도 영의 말씀이다. 또한 ‘소 울음소리’의 실제는 구세주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임도 완벽하게 해명이 되었다. ‘소 울음소리 나는 곳’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입증되어야 지 추상적인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 없이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 자기네 종교라고 목청을 높여 봐야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엄마’와 ‘소 울음소리’가 박태선 영모님의 전도관과 신앙촌 역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종교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구세주를 출현시키시기 위한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예정된 역사(役事)였던 것이다.

적임유록에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일심합력 전가족이 공을촌을 찾아보소.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 소는 보이지가 않는구나. 바로 이곳이 신천촌 즉 신앙촌이라는 곳인데 한심하다 초로같은 인생들아, 공을촌을 모르거든 하나님을 찾는 촌을 먼저 찾은 후에 ‘엄마’를 찾는 촌을 다시 물어서 찾아보시오(출장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四. 朴泰善 靈母님과 曹熙星 救世主님

박태선영모 조희성구세주

박태선님은 당신을 엄마라고 공식 지칭함

박태선 영모님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엄마로서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셨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빠놓지 않고 말 씀하시던 해산의 수고 끝에 육동자 구세주를 낳으신 것이다.

이후 ‘승리재단(勝利祭壇)’이라는 제단 명칭을 지어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영적인 아들인 구세주 조희성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영모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 할미가 일을 다해서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다 맡기려고 해”

“의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항하여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1982.6.21 신앙신보)”

“그 속에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이긴자가 나왔다(1982.12.2 신앙신보)”

“이기는 자를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키워 모처에 모셔놨다(1982.12.28 축복일)”

“2년전까지 이긴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채게 가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1982.2.22 신앙신보)”

영적 엄마 되시는 박태선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키운 아들 구세주님의 출현을 만천하에 알리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을 누구 한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에는 당신이 낳은 아들 구세주님이 조희성님임을 직접 말씀하시게 된다. 다

음의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의 보따리를 선사하겠다. 소사에서 그때 두 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하겐 좋아야. 실력과 능력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 피리를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내 가치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희성이 그제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르치는데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이 보다 굉장하겐 것을 한다 이거야.”

위의 이 말씀은 노골적으로 당신께서 낳아 키운 구세주가 조희성님임을 강하게 증거하신 말씀이다. 맨 피리라고 지적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인 구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키운 구세주 조희성님을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자랑하신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삼수의 하나님 중 막내인 맏꼬리의 ‘살려주는 신인 두 번째 아담’인 구세주로 출현하신 것이다(고전 15장 45절).

五. 金木合運하여 地上仙國 創建이라

금목합운 지상선국 창건

金木合運東西로서 地上仙國 創建이라 금목합운동서 지상선국 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無事(無事)琴千선출기인후강주 무사탄금천 年歲다. - 勝運論

년세 승운론

금운되시는 조희성 주님과 목운 되시는 박태선 영모님 두 분의 운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지상선국을 건설하시는데 먼저 오신 박태선 영모님과 후에 오신 조희성 구세주의 금운이 천만 년을 아무 일 없이 이어지는구나.

해설 : 해산의 수고 끝에 구세주를 낳아 키우신 박태선 영모님과 그분을 통해 태어나신 조희성 구세주님, 두 분이 합일(合一)되어 구세주 조희성님의 주도하에 완성의 역사를 마치신다. 이와 같이 기묘(奇妙)하고도 오묘(奧妙)한 천기(天機)인 구세주 출현과정인 천리(天理)의 역사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늘이 감추고 또 극비리에 감춘 천기 중의 천기인 것이니 만일 구세주가 어떤 식으로 출현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면 하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지도 모른다.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구세주 출현의 예언을 누가 알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본 고장인 유대민족은 알 수 있을까? 또 ‘소 울음 소리 나는 곳’에 대한 해석도 누가 알 수가 있던 말인가?

이와 같은 극비의 하늘의 천기는 하나님의 직계 천손민족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단군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중의 한 지파인 ‘단’지파이고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극비 작전 속에 극동 한반도로 이동시켜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해 특별히 숨겨 키운 천손민족인 단군민족이다. 이 천손민족인 단군민족 중에서 목운(木運)되시는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金運)되시는 조희성 구세주님을 출현시키 인류 구원의 대 역사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분들의 존재를 아는 분이 복된 자

이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분골쇄신 될지라도 천리 길도 멀다 말고 열심히 그 분을 따라가야 한다.

東西金木相合之年 地上仙國福地로서 동서금목상합지년 지상선국복지 開國以來初有之時 前無後之長 개국이래초유지시 전무후지장 春世 天上玉京降弓火를 甘露수에 춘세 천상옥경노궁화 감로수 불을켜서 弓乙仙人 相達하여 不死 공을선인 상봉 불사 消息 다시듣고 嚴殿嚴壽 빠진백성 소식 풍랑파도 生命線路건질적에 粉碎碎身될지라도 생명선로 분골쇄신 不遠千里말다미소 불원천리

동방을 상징하는 3·8 목운 박태선 영모님과 서방을 상징하는 4·9 금운의 조희성 정도령님의 운이 합하여져서 이 세상에 지상선국이 건설되는데 천지가 개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전무후무한 불로장생의 세계로다. 하늘나라의 서을 옥경에서는 활의 불을 갈라나무 기쁨으로 불을 붙여 공을 선인 즉 정도령을 만나서 불사영생하는 소식을 다시 들으며 풍랑파도에서 빠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명선으로 건질적에 분골쇄신 될지라도 천리길도 멀다 여기지 말고 달려가서 구원 받으시오.

해설 : 목운인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인 조희성 구세주님이 합작하여 지상선국을 건설할 때는 전무후무한 불로장생의 세계가 열리는 때이니 천리길이 멀다 말고 열심히 달려가서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정도관의 박태선 영모님과 승리재단의 조희성 구세주님은 말잡한 모자지간으로 맺어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성공리에 끝맺음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순수본성(양심)이 사라지면서 혼돈과 파멸의 오늘날과 같은 무도한 세상이 돼버렸다. 무도한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인생관, 가치관, 윤리의식)로 만든 법과 제도와 교육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구와 도구는 도를 잃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결함과 허점투성이다. 자연히 그것을 교묘히 악 이용하는 무리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세상은 괴롭고 고통이 넘칠되는 최악의 바다가 돼버린 것이다. 개개인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여 사사로운 이익과 안일을 도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폐단이다. 개개인이 기준 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도구와 기능을 만들었지만 완벽한 것이 될 수 없다. 세상 흥한 말로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등 위에 교묘히 타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순수본성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합당하지 못하다. 해서 인간은 하루빨리 도

의 근본자리인 양심(순수본성) 앞으로 분연히 나

도덕경 해설

絶學亡憂

절학망우

배우기를 멈추면 근심이 없어진다?

아와 도통군자들로 구성된 세상을 속히 이룰 것을 촉구하는 것이 도덕경이 지어준 참뜻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문장을 읽고 이해하면 납득이 쉬울 것이다.

絶學亡憂(절학망우): 배우기를 멈추면 근심이 없어진다?

배움이란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쌓는 것이다. 세상 지식을 쌓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텐데, 되레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였을까? 바로 여기에 세상 학문과 도를 닦는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

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세상 학문은 인간의 순수본성이 무너진 뒤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 나’가 주체가 된 상태가 아니고 ‘거짓 나’가 주체가 되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참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경유에 위배됨이 없으나, ‘거짓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세우기 위해 세운 법과 제도는 도리어 힘없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 되어 삶을 옥죈다. 인간이 만들어 낸 학문과 도를 바 없는 법과 제도

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는 이원론적 흑백논리로 정의될 수 있다. 참(옳은 것)과 거짓(그른 것)이 엄격히 구분된다. 이 둘은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학문적 사리이다. 하지만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대적인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왜 그럴까? 흔히 이 세상은 상대성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다르게 보고, 모든 현상들을 이질적 존재로 엄격히 구분된 획일적 사고와 관념으로 적용하기에 그렇다. 이러한 이원론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삶과 죽음, 음과 양,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등. 모든 실상이 이원적 세상 구조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도는 일원적 하나의 세계를 포괄한다. 역전만으로 쪼개고 나눠진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가 하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천명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따로 떼어놓고 분리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돌로 보일지 모르나 속진 현상은 물로 보일지 모르나 관념과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치를 알기에 상대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美與惡 相去可若(미여악 상거가약):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상대적인 것이 사라져서 같은 것으로 될 수가 있소

상대적 이원적 관념이 사라진 자리에 일원적 관념이 들어서면, 아름다움과 추함이 다 자신의 분별에 의한 사고 작용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분별지가 생겨서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 괴롭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과 삼라만

상 모든 물질세계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와 남을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상대적 관념 자체가 다 허망한 것으로 여긴다.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원적 세계관이 만들어낸 초조, 불안, 공포, 혼란 등 그것을 하나 일원적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괴롭고 고통과 불행의 요인들이 이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이치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번뇌와 망상과 혼란이 사라지고 정신적 평화와 고요 속에 지극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人之所畏 亦不可以不畏(인) (인지소와 역불가이불외(인)): 이것이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 실로 불가능한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과 삼라만상 모든 물질세계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이미 상대성 원리에 입각한 사고와 관념과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음으로 도리어 하나의 세계(도의 세계)를 말하고 전하는 것이 거짓처럼 이상스럽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인류를 내 몸처럼 여기라는 참 도를 전하면 되레 비웃고 조소한다. 오히려 도를 알고 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 바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요,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어쩌랴.*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